

열린 귀와 시민의 아이디어, 여수를 바꾼다

4기 여수 100인 시민위 출범...1년간 경제 등 5개분야 의견 전달 SNS '여수이야기' 370건 악성 민원 해결 등 온라인 소통도 활발

여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공을 쏟고 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나서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도 인터넷과 SNS(사회적관계망)를 통해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다.

◇오프라인에서=여수시민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1청사 회의실에서 '제 4기 100인 시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여수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100명의 시민들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시민위원들은 앞으로 1년동안 기획행정, 지역경제, 환경복지·복지, 도시교통, 문화관광·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지역민들의 가깝없는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0인으로 첫 1기 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올해로 내번째다. 시민위는 출범 후 지금까지 100차례의 회의를 열고 14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기획 행정 부문의 경우 ▲생활임금 제도도입 ▲개인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 등 15건이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예울마루 장도개발 ▲소호지구 광장 해안테크 산책로 명칭 제정 등 19건의 시민 의견이 정책 부서에 전달됐고 환경복지 부문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행복나눔해피콜 운영 개선 등 33건의 의견이 전해졌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 등 40건,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여수 밤바다 체험형 낭만버스 운영 등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마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라전 옛 기차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은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들도 시민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있다. 인구 감소 대책의 경우 온갖 방법을 추진했음에도 2008년 이후 감소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들에게 '인구늘리기 방안'을 주제로 창의적 제안을 공모받기도 했다.

◇온라인에서=여수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여수이야기'를 운영,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여수이야기'는 매일 소통하는 시민 수만 6만 8000여명에 달한다.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페이스북 팔로워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목포·여수·순천·광양 지역 공식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지난 7월 기준(27일) ▲여수 3만6772명 ▲순천 3만2666명 ▲광양 2만2056명 ▲목포 5684명 등이다. 카카오톡을 공유하

는 친구도 여수의 경우 1만8938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2311명 ▲광양 5264명 ▲목포 255명 등이다.

여수이야기를 통해 접수된 370건의 악성 주민 불편 민원도 모두 처리하는 등 온라인 목소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소통하는 지역민들이 많다보니 지난해부터 문화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1박 2일 섬 초딩 육지 나들이'와 '백야 꼬맹이의 꿈은 이뤄진다' 등 SNS 이벤트에는 수십 만개의 응

답글이 넘쳐나고 있다.

여수시는 도란도란 소통방, SNS 이벤트, SNS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과 '대한민국 SNS 대상' 등을 수상한 점도 이같은 성과가 한몫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최고 '행복 소통도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여수로 이전을"

여수·순천·광양상의 이전 건의서

여수상공회의소와 순천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여수 지역 이전 건의서를 전달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제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시설 확충, 기술 축적, 대 중국 대응 등을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석유화

학제품과 원재료 단가 차액으로 현재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성장, 50년이 넘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환경·공해 대응문제,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따른 신소재·부품 화학소재 개발 등 산업단지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광양지역의 철강산업단지도 수요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의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간의 협의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학제품과 원재료 단가 차액으로 현재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성장, 50년이 넘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환경·공해 대응문제,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따른 신소재·부품 화학소재 개발 등 산업단지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광양지역의 철강산업단지도 수요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의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간의 협의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주삼동 가을꽃밭

삼일동 가을꽃밭

〈사진=여수시 제공〉

골목 곳곳 '가을 꽃단장'

미평동·삼일동·주삼동·중앙동 자치위, 자투리땅에 꽃심기 활발

여수 골목 곳곳이 가을꽃으로 단장한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을꽃으로 동네를 가꾸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여수 미평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최근 관내 도로변에 국화, 사루비아, 베고니아 등 가을

꽃을 심었다.

삼일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80여명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자투리땅 8곳에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가을꽃으로 동네를 꾸몄다.

주삼동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60여명도 지난 8일 관내 자투리땅에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6500여개의 가을꽃을 심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중앙동 체육회 등의 지원을 받아 고소천사백화마을 1구간과 3구간에 국화꽃 화분을 설치했다. 이 구간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간으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골목을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19개국 400여 작가 현대미술 대축제

15일부터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한달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

'2017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통'(TONG)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19개국 400여 작

가들이 출품한 판화, 서예, 조각, 공예, 트리아트 등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작품으로 구성된다.

아름다운 여수의 풍광을 표현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관광 사진·영상도 함께 전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참여 작가를 모집, 해외 18개국 47명, 국내 353명의 작가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